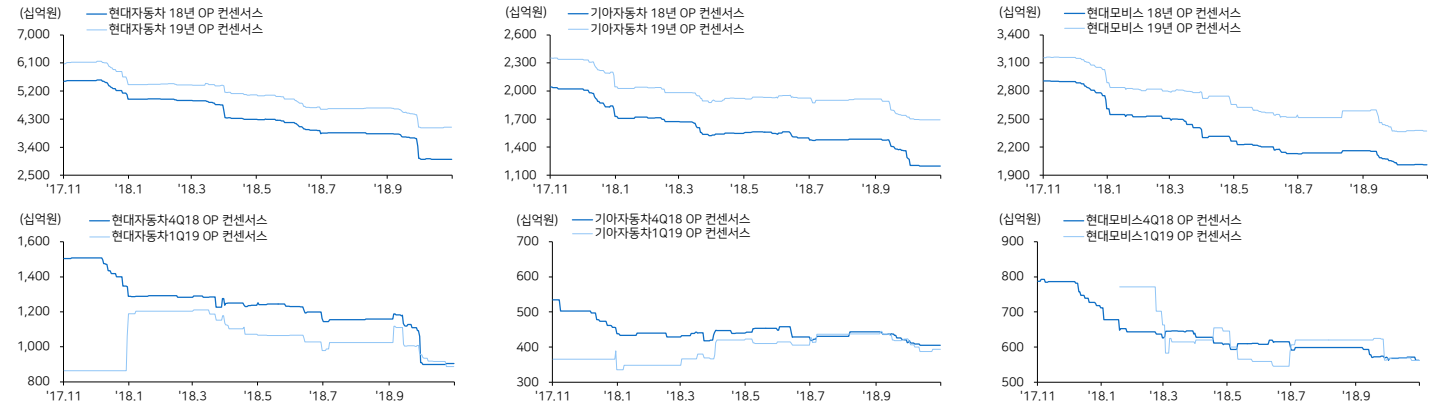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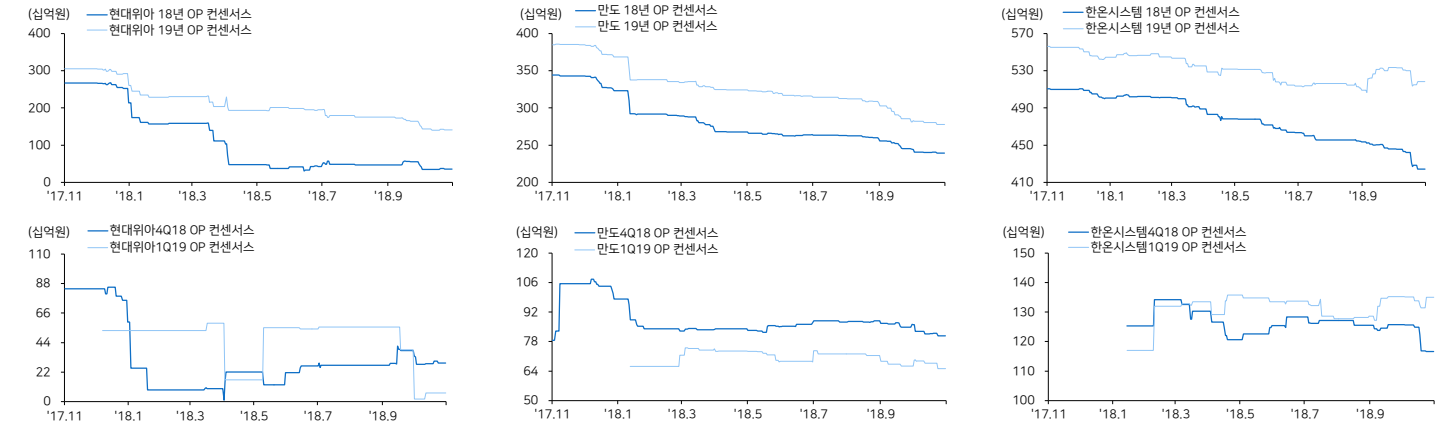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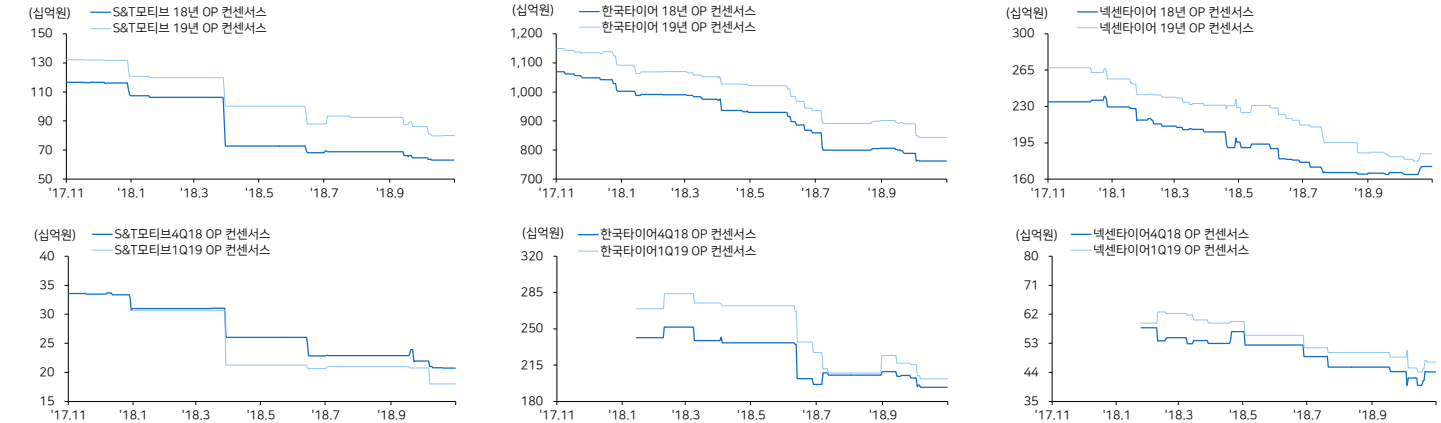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의 주요 뉴스

### 현대·기아차, 연간 전기차 생산량 10만대 도전 (전자신문)

현대·기아차가 내년 전기차 생산량 목표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 10만대로 잡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무게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바뀌는 흐름에 적극 대응키로 함. 계획대로라면 내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권 진입이 가능. <https://bit.ly/2ZBD8jL>

### 현대모비스 2022년 자율주행 수주 목표 100억달러 '투자 확대' (뉴스1)

현대모비스가 2022년 자율주행 센서 등 관련 부품 수주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음. 미래차 부문을 강화에 사업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부품 매출 대비 7% 수준인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2021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https://bit.ly/2r6zCNU>

### 인도车市장, 가격 경쟁 심화...도요타·포드 '인상', 현대차·타타대우 '동결' (글로벌이코노믹)

도요타와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인도 차시장 가격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음. 인도 루피와 약세로 제조원가가 올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https://bit.ly/2ZrQCXX>

### 독일 다임러, 내년 말부터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 (전자신문)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 그룹이 내년부터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 다임러는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같은 기존 모델이 중국에서 여전히 인기라 높지만, 중국 정부의 전기차 쿼터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 <https://bit.ly/2Qvzdhc>

### 제네시스 G70·현대차 코나, '북미 올해의 차' 최종후보 올라 (이데일리)

제네시스 G70과 현대차 코나가 각각 '북미 올해의 차' 승용과 유틸리티차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경쟁력을 과시.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북미 올해의 차는 내년 1월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 <https://bit.ly/2DNspoF>

### \*美,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 시행되진 않을 것...정부, 비상 대책 검토 (한국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경고를 잇따라 보내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단기간 내 관세 카드를 쓸 확률은 낮다"고 밝힘. 다만 정부는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비상 계획도 준비하고 있음. <https://bit.ly/2AB1s4q>

### 미국, 중국산 자동차 관세인상 40% 검토 (뉴스타운경제)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중국이 미국 수출차량에 부과하는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함. <https://bit.ly/2RqtWZ>

### 200여개 자동차회들, 소유주 동의없이 중앙시센터에 정보제공 (뉴스1)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감시센터에 전기차 소유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 여기에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BMW, 벤츠, 포드, GM, 닛산, 미쓰비시 및 미 전기차 스타트업 NIO 등 포함. <https://bit.ly/2KFEzAM>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 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 김준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